

# “낮선 관점의 현대미술, 현대차와 잘맞아”

December 2, 2019 | 김금영 기자

page 1 of 12

기업 문화

## “낮선 관점의 현대미술, 현대차와 잘맞아”

국내와 해외에서 대규모 미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현대자동차의 노력을 만날 수 있다. 영국 테이트모던과는 11년 장기 파트너십 프로젝트로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 전시를 개최하며, 미국 LA카운티미술관(LACMA)과는 더 현대 프로젝트(The Hyundai Project at LACMA)를 통해 한국 미술사 연구 활동을 지원해 왔다. 국내에선 국립현대미술관과 올해로 6번째 MMCA 현대차 시리즈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미술 지원의 주요 책임자인 조원홍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을 만나 현대자동차의 미술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현대자동차 조원홍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  
 사진 출처 = 안드레아스 마이크스너(Andreas Meichsner).  
 사진 제공 = 현대자동차 아트랩(ARTLAB)

## Part ① 조원홍 고객경험본부장이 말하는 '미술과 현대차'

김금영 기자

문화부 기자로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현대자동차' 이름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가장 최근 방문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박찬경 - 모임'전을 비롯해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 열리는 대규모 전시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여러 해 수차례 볼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후원, 전시 기획, 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프로젝트 현장에서 만났던 현대자동차 조원홍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은 "현대미술과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이 맞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예술에 지닌 각별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여러 사회공헌 활동 중 특히 예술 후원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많은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포용적인(inclusive) 기술을 개발할지,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개발할지 고민한다. 예술은 테크놀로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예술은 인간, 시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서 출발하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과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가치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박찬경 - 모임'전 현장. 사진 = 김금영 기자

는데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목하는 등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현대미술의 특성은 현대차가 추구하는 브랜드 방향성과 잘 맞는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사회 현상에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현대미술 특유의 속성은, 내부 혁신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에도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에 함께할 세계적인 예술기관, 작가, 큐레이터 등 창작활동을 하는 다양한 분들과 협업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 조직 내부에 아트 마케팅을 전담하는 아트랩을 두고 있다. 아트랩이 만들어지게 된 시기 및 계기와 어떤 역할을 전담하는지 궁금하다.**

"현대자동차는 예술의 동반자로서 시대적 담론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과 예술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이에 일차원적 후원이 아닌 진정성을 기반으로 예술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고자 2년 전 아트랩(ARTILAB)을 조직했다.

컬렉션 형태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기업이 작품을 소유하는 형태가 아닌, 더욱 많은 관람객과 시민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 작가 그리고 작품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후원 활동을 집중한다. 그 중간 연결자로서 아트랩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아트랩 일원들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현대자동차의 예술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공유됨으로써 더욱 큰 가치를 만들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

**- 올해 6회를 맞이한 'MMCA 현대차 시리즈' 개막 및 올해 선정 작가인 박찬경 작가의 작업/전시를 관람한 소감은?**

"MMCA 현대차 시리즈는 국내 미술계에



현대자동차는 그로서 현대트랜시스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친환경 패션디자이너의 손잡고 자동차 폐소재를 업사이클링하는 협업을 9월 진행했다. 사진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영국 테이트모던과 중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타바인 홀에서 전시 프로젝트를 펼쳐 왔다. 사진은 테이트모던 외관. 사진 출처 = Tate Modern exterior © Ben Fisher Photograph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획돼 지난 5년 동안 국내 중진 작가들의 대규모 개인전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는 작가와 큐레이터, 미술관과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총괄적인 후원 방식에 대한 현대자동차만의 철학이 담겼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상상력이 펼쳐진 전시를 선보일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

평론가, 영화감독, 큐레이터, 사진가, 작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약해 온 박찬경은 치밀하고 체계적인 리서치를 수행하며 '공동체'의 의미를 독창적으로 사유해 온 아티스트다. 이번 전시는 '모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잊힌 과거의 이야기 혹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뒤떨어져 가려져 있던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워트 있는 시선으로 끌어낸다. 총 6개의 전시 구역에서 작품들은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된다. 이는 곧 우리의 삶, 혹은 우리가 만나 사회를 만들어 내는 모습과도 맞닿는 흥미로운 전사이다. 지난 역사의 현장을 오늘날의 삶이

는 우리네 이야기로 만들어 내 박찬경 작가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현대자동차는 미술계의 가치 사슬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자인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지원해 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이들에게 존중 받는 미술관들과 함께 훌륭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예술 생태계 전반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 미술계에서 한국 예술의 위상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현대자동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 중 하나다. 국립현대미술관의 활동과 비전이 현대자동차와 그 결을 같이 했기에 'MMCA 현대차 시리즈'와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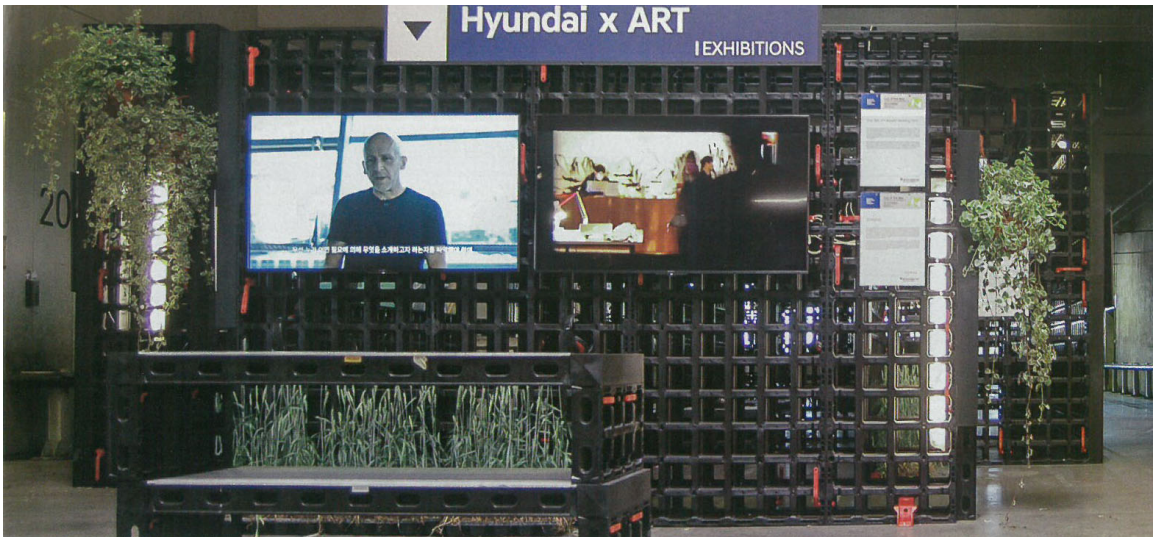
- 'MMCA 현대차 시리즈'가 신진 작가, 혹은 글로벌 작가가 아닌 한국 중진 작가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 핫하고 주목 받기 좋은 글로벌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는 쉽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문화예술사 전체를 폭넓게 조망해 결핍된 부분을 찾고, 그곳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장기 파트너십들은 단순 후원의 형태가 아니라 나름의 콘셉트와 방향성이 있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 형태를 고민하고 진행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아이디어들이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으며, 궁극적으로 한국 아티스트들과 그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올해 7월에는 국내 차세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해시태그(#)'를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론칭했다. 'MMCA 현대차 시리즈'가 국내 대표 중진 작가를 후원한다면, '프로젝트 해시태그(#)'는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콜렉티브 형태로 모여 주제와 장르를 뛰어넘는,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개방형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두 프로젝트가 향



현대자동차는 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모습을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및 테크놀로지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2019(Ars Electronica Festival 2019)'을 공식 후원했다. 사진은 9월 마련됐던 '현대 x 아트' 전시 부스 전경. 사진 = 스테판 퍼버바우어(Stefan Fuertbauer)/게티이미지 포 현대(Getty Images for Hyundai)

후 국내 예술계 후원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

-작가 선정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역할 및 선정 작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궁금하다.

“현대자동차는 작가 선정 혹은 운영 전반에 대해 파트너 기관들이 유연하게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미술관들과는 파트너십 체결 전 크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먼저 ▲전시와 큐레이팅에 대한 독립성과 순수성을 지켜줄 것 ▲중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가, 큐레이터 등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술 생태계 전반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을 감상하는 관객들, 더 크게는 인문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정 작가들에게는 전시를 위한 제작비, 운영비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 'MMCA 현대차 시리즈'를 거쳐 간 대표적인 작가들

소개하자면?

“2014년 이불 작가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5년 안규철, 2016년 김수자, 2017년 임홍순, 2018년 최정화 그리고 올해 박찬경 작가까지 6인의 중진 작가들이 현대차 시리즈와 함께 했다. 이불 작가의 경우 'MMCA 현대차 시리즈 2014: 이불'전 이후 2018년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와 베를린의 그로피우스 바우, 2019 아트 바젤 홍콩,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더욱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수자 작가도 최근 개막한 프랑스 트라베르세 축제 대표작가로 작품을 전시 중이다. 현대자동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많은 관객들이 훌륭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시공간을 넘어 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

- 'MMCA 현대차 시리즈'가 앞으로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 및 목표는?

“예술은 인류가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공통의 유산으로, 훌륭한 예술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에게 보다 오

랜 고민의 시간을 줘야 한다. 그들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상상력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자 하며, 'MMCA 현대차 시리즈'가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자동차가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앞으로도 'MMCA 현대차 시리즈'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큐레이터뿐 아니라 현대차 시리즈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예술을 통해 그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여러 질문들을 색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며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풍요롭고 다채로워질길 기대한다.”

-국내에서의 'MMCA 현대차 시리즈'를 비롯해 해외에서는 미국 LA카운티미술관(LACMA), 영국 테이트모던(TATE)과 함께 많은 예술 활동을 펼쳐 왔다. 대표적인 혹은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몇 가지 꼽는다면?

“LACMA와 테이트모던은 미국과 영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다. 이들과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고객들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시가 인상적이었지만, 그 중 꼽



현대자동차와 영국 테이트모던의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폰즈 아메리카누스(Fons Americanus)'전이 2020년 4월 5일까지 열린다. (왼쪽부터) 테이트모던 전시 프로그램 총괄 이킴 보르하르트홀, 테이트모던 관장 프란시스 모리스, 이번 현대 커미션 전시 작가 카라 워커, 현대자동차 영국법인 대표 예술리 앤드류. 사진 =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 Ben Fisher Photography

는다면 올해 6월 LACMA에서 개막한 '비온드 라인: 디아트 오브 코리아인 라이팅(Beyond line: The Art of Korean Writing, 이하 비온드 라인전)' 전시와 테이트모던과의 11년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매년 테이트모던의 티바인 홀에서 열리는 전시 프로젝트 '현대 커미션(Hyundai Commission)'의 다섯 번째 전시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폰즈 아메리카누스(Fons Americanus)'를 소개하고 싶다.

LACMA와 마련한 '더 현대 프로젝트(The Hyundai Project at LACMA)'를 통해 한국 미술사 연구 활동을 지속, 지원해 왔다. '비온드 라인전'은 지난 3년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국시대 전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국 서예의 역사를 총망라한, 해외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한국 서예 전시라는 점에서 뜻깊다.

올해 현대 커미션에는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등 현대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자신만의 날카로운 관점을 꾸준히 제시해 온 카라 워커가 참여했다. 영국 런던 버킹엄궁 앞 빅토리아 기념비로부터 영감을 받아

구상한 약 13미터에 달하는 대형 설치 작품을 통해 '역사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확장해 바라보게끔 하는 전시다."

-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현대차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차가 가져올 미래와 예술을 결합해 선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방향성 및 정체성과도 연관된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예술을 통해 현대자동차가 받는 영감과 이를 구현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면?

"예술은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고, 다양한 시대적 담론과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 연장선에서 테이트모던과 올해 1월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Hyundai Tate Research Centre: Transnational)'의 설립을 발표했다.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은 세계 각지의 미술관 및 연구 기관들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전지구적 관점의 통합적 연구와 협업을 진행하는 테이트모던과의 새로운 연구 플랫폼이다. 미술관 본연의 기능인 연구·소장·전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미술사 정립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까지의 지원을 통해 보다 폭넓은 지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대 문화 예술에 대한 의견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결과물들은 초기 단계부터 조금 더 일찍 시대의 생각과 가치를 읽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와 운전자, 자동차와 승객, 자동차와 고객이 아닌 이 시대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방향성은 곧 예술 생태계를 이해하고 후원하는 현대자동차의 행보와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

Part ②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박찬경 - 모임' 현장

2018년 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할머니 4명의 삶이 임홍순 작가의 손길을 거쳐 대형 영상 작업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올해 초엔 사람들로부터 기증받은 7000여 개의 생활용품을 쌓은 최정화 작가의 대형 설치 작업 '민들레가 미술관 마당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번엔 박찬경 작가가 '석가모니의 열반'이라는 종교적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시대 재난을 하나로 묶은 영화 '늦게 온 보살'을 내놓았다. 이 실험적인 모든 작품들이 거쳐 갔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현장은 바로 MMCA 현대차 시리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 2019: 박찬경 - 모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0년 2월 23일까지 열린다. MMCA 현대차 시리즈는 매년 국내 중진작가 1명을 지원하는 연례 프로젝트로, 2014년 시작됐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에게 대규모 신작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업에 새로운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시 공개 현장에 참석한 국립현대미술관 일대근 학예연구관(왼쪽), 박찬경 작가. 사진 = 김금영 기자

하고, 국내외 미술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 현대미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현대자동차가 함께 마련한 자리다.

2014년 첫째 이불 작가를 시작으로, 안규철(2015), 김수자(2016), 임홍순(2017), 최정화(2018) 작가가 이 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미술계에 존재감을 세로이 각인시켰다. 이불

작가는 올해 5월 개막한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참여 작가로 20년 만에 재초대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 수상으로 세계 미술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킨 임홍순 작가는 MMCA 현대차 시리즈를 통해 신작을 선보이는 기회가 있었다. 이처럼 예술 후원의 길을 꾸준히 걸으며 한국



박찬경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재난 이후의 동시대적 상황에서 미술 언어의 또 다른 가능성을 고찰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사진 = 김금영 기자

현대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MMCA 현대차 시리즈는 문화예술과 기업이 만나 상생 효과를 창출한, 대표적인 기업 후원 사례로 꼽힌다.

올해 MMCA 현대차 시리즈에는 박찬경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립현대미술관과 현대자동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순조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 작가 개인적으로도 내게 이번 전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경은 분단, 냉전, 민간신앙, 동아시아의 근대성 등을 주제로 한 영상, 설치, 사진 작업을 펼쳐온 작가다. 1997년 첫 개인전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을 시작으로, ‘세트’(2000), ‘과워통로’(2004-2007), ‘비행’(2005), ‘반신반의’(2018) 등 한국의 분단과 냉전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아래 다루며, 이를 사진과 비디오로 선보여 왔다.

특히 2008년 ‘신도인’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민간신앙과 무속을 통해 한국의 근대성을 해석하는 장·단편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이 주제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2010), ‘반산’(2013), ‘시민의 숲’(2016) 등으

로 이어졌고, 작가는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4),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영화 부문 황금곰상(2011)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임(Gathering)’을 제목으로 한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55분 분량의 흑백 반전 영화 ‘늦게 온 보살’이다. 산속을 헤매는 한 중년 여성, 그리고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하며 산을 다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된다. 중년 여성은 부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젊은 여성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헤맨다. 각자의 목적과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영화속 등장인물들은 한 컨테이너에 모이게 된다.

#### 액자 구조의 전시장에 들어가고 또 나오기

국립현대미술관 입대근 학예연구관은 “이번 전시의 키워드인 ‘모임’은 군중에 대한 작가 특유의 의식에서 시작됐다. 특정 목적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는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우리는 민중, 군중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목소리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면 자칫 악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며 “이 가운데 작가

는 따뜻한 연대감을 드러내는 모임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제시한다. 수많은 재난 이후의 가혹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슬퍼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작가의 신작과 더불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액자 구조다. 전시장벽 곳곳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반대편에 전시된 작품들 또는 공간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박찬경 작가는 “우리는 프레임에 속한 것을 안전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정말 안전한지 다시금 의문을 갖고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미술사와 미술관 또한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틀이 아닌지 비판과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랐다”고 의도를 밝혔다.

전시는 이 액자 구조를 바탕으로 여러 작품이 모인 형태로 구성된다. ‘후쿠시마, 오토 래디오그래피’는 원전사고 피폭 현장인 마을을 촬영한 박찬경의 사진, 그리고 일본의 사진가 카가야 마사미치와 식물학자 모리 사토시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채취한 다양한 생물과 사물을 오토래디오그래피(사진유제



전시실 중앙에 넓게 펼쳐진 ‘해인(海印)’은 다양한 물결무늬를 새긴 시멘트 판, 나무바루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 = 김금영 기자



박찬경 작가가 국내 여러 사찰을 다니며 쌍림열반도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콜로즈업해 찍은 사진 작업 ‘모임’과, 열반에 든 석가모니가 애제자 가섭존자를 향해 양발을 내밀었다는 ‘곽시쌍부’ 설화를 바탕으로 작업한 ‘맨발’이 함께 설치된 전시장. 사진 = 김금영 기자

를 사용해 방사능을 검출 측정하는 방법)로 만든 이미지를 모은 것이다. 방사능 피폭이라는 재난의 현실을 알려주는 이미지들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이다.

작가가 국내 여러 사찰을 다니며 쌍림열반도(석가모니가 입적할 때의 광경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 작업 '모임과, 열반에 든 석가모니가 애제자 가섭존자를 향해 양발을 내밀었다는 '곽시쌍부' 설화를 바탕으로 작가가 작업한 '덴발'도 전시장의 또 다른 공간에 모였다. 이 이미지들은 액자 구조를 취한 전시장 안에서 상호 교류하는 느낌이다.

전시실 중앙에 넓게 펼쳐진 '해인(海印)'은 다양한 물결무늬를 새긴 시멘트 판, 나무마루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곳에서는 11월 8일~12월 5일 전시 주제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과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작가가 전시 현장 자체를 다양한 모임이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임대근 학예연구관은 "작가는 강요된 권위와 틀에 저항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깨어 있는 관객들이 곧 이번 전시의 제목인 '모임'에 초대받

은 이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이윤이나 동기 없이 순수한 유대만으로 모이기 힘든 세상이다. 이진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고, 현재도 겪고 있으며 이런 현실에서 모임의 목적과 형태는 변질되기 마련이다. 이 가운데 작가는 여전히 유대로서의 모임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임대근 학예연구관은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재난 이후의 동시대적 상황에서 미술 언어의 또 다른 가능성을 고찰한다. 다양한 이미지의 작품들을 모으고 모아 관람객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로서 작품을 바라보고 스스로 고찰해보도록 유도한다"며 "액자 구조 안에서 전시를 관람하던 관람객들은 전시실 마지막에 설치된 1:25 배율 축소모형 '5전시실'을 보고 액자 밖 현실로 돌아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은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성찰해 미술 언어로 풀어내 온 박찬경 작가의

첫 국립현대미술관 개인전이다. 그동안 작가가 전시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전시를 통해 MMCA 현대차 시리즈가 미술계에 제대로 안착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기쁘다. 금년 하반기에 큰 볼거리를 선사하는 전시"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조원홍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은 "박찬경 작가 특유의 유티 있는 시선으로 구성된 작품들을 통해, 현시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뒤집어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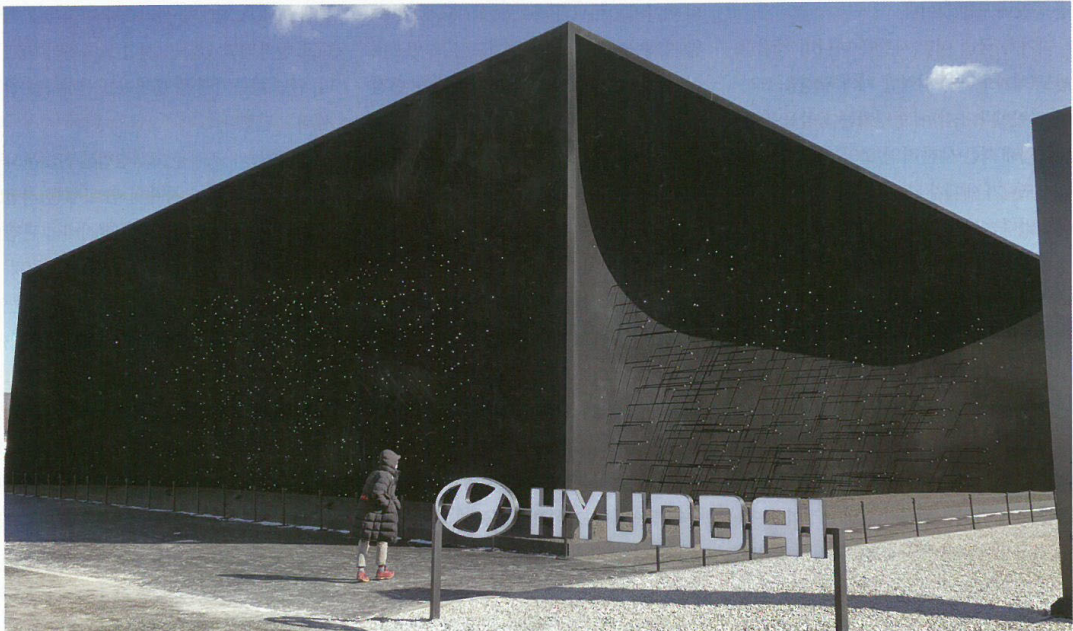
한편, 현대자동차는 미국 LACMA, 영국 테이트모던과 같은 글로벌 문화예술계와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업으로 경영 전반에 문화 예술적 가치를 접목,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현대자동차만의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고 있다.



55분 분량의 흑백 빈전 영화 '늦게 온 보살', 산속을 헤매는 한 중년 여성, 그리고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하며 산을 다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된다. 사진 = 김경영 기자



### Part ③ 예술 후원으로 브랜드 철학 전하는 현대차



2018년 초 평창올림픽플라자에 마련됐던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약 370평, 높이 10m 규모의 파빌리온의 외벽은 우주를 상징했다. 사진 = 김금영 기자

“나는 실험적인 협업을 좋아한다. 과학과 미술 둘 다 관심이 많은데 현대자동차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두 가지 모두 시도할 수 있어 기쁘고 뜻깊었다.”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 현장에 마련된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프로젝트에서 만난 영국 건축가 아시프 칸은 당시 소감을 위와 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아시프 칸의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된 ‘현대자동차 파빌리온’은 수소 에너지를 주제로 했다. 파빌리온은 수소 자동차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며 이를 간접적으로 체험시켜주는 형태로 꾸려졌다.

관련해 현대자동차 조원홍 고객경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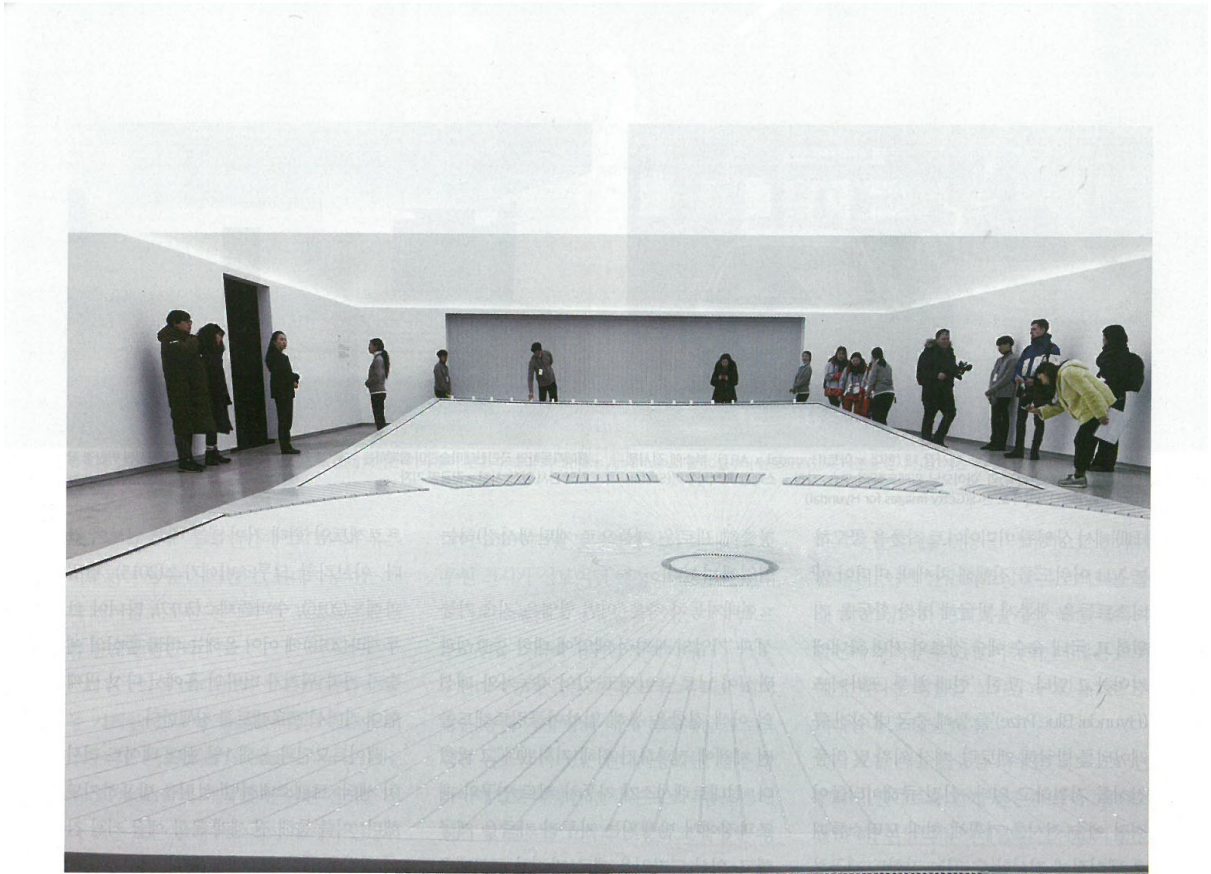
장(부사장)은 “자동차의 기술만 강조하는 것 보다는, 고객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삶에 이용하는 과정 모두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품격 있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술을 기술 그대로그가 아니라 예술과 결합해 보여주는 것도 이런 브랜드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파빌리온은 전시 오픈 3일만에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는 현대자동차는 9월 5~9일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및 테크놀로지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2019’를 공식 후원하기도 했다. 수소전기차 ‘넥쏘’,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총 9대의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하고, 축제 기간 동안 예술과 기술의 만남에 주목한 현대자동차의 활동을 담은 브랜드 영상을 상영했다.

국내 작가를 위한 문화 예술 후원 활동으로 ‘품격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는 데도 집중해 왔다. 국립현대미술관과는 매년 중진작가 1명의 작업과 전시를 후원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를 2014년부터 이어 왔다. 이불(2014), 안규철(2015), 김수자(2016), 임흥순(2017), 최정화(2018) 작가 등이 이 시리즈에 선정돼 대규모 전시를 선보였고, 현재 여섯 번째 작가인 박찬경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중진작가 지원을 비롯해 차세대 신진 유



현대자동차와 아시프 칸의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된 '현대자동차 파빌리온'은 수소 에너지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보여줬다. 사진 = 김금영 기자

망주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한 '프로젝트 헤시태그'는 장르의 제약이 없는 협업 형태의 차세대 크리에이터 발굴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 헤시태그 사업 공모는 7월 2-22일 진행됐으며 203팀의 다양한 영역의 지원자들이 접수했다. 그 중 5팀이 서류 심사를 통과해 최종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선발된 강남버그와 SQC 두 팀에게는 각각 창작지원금 3000만 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작업실(6개월)이 제공된다. 두 팀이 제안한 기획의 최종 결과물은 내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선보일



2018년 2월 12일 열린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설명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아시프 칸 작가, 현대자동차 조원홍 고객경험본부장(부사장), 현대자동차 지성원 크리에이티브 워크스 실장. 사진 = 김금영 기자

예정이며, 해외 유수의 기관 및 전문가들에게 소개해 해외 진출 기회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측은 "2014년부터 이어온 국내 중진 작가 후원 프로그램 'MMCA 현대차 시리즈'와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 헤시태그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차세대 크리에이터들이 세계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문화예술계의 지면 확대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직접 기획한 다양한 공모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미디어아트 갤러리 '비전홀(Vision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발’ 행사장 내 ‘현대 x 아트(Hyundai x ART)’ 부스에 전시됐던 현대자동차 ‘넥쏘’(왼쪽)와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모습. 사진 = 스테판 퍼버바우어(Stefan Fuertbauer)/게티이미지 포 현대/Getty Images for Hyundai)



현대자동차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 올해 작가에 선정된 박찬경 작가의 전시 현장. 사진 = 김금영 기자

Hall)에서 상영될 미디어아트 작품을 공모하는 ‘VH 어워드’를 진행해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새롭게 발굴해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순수 예술 장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현대 블루 프라이즈(Hyundai Blue Prize)’를 통해 중국 내 신진 큐레이터를 발굴해 멘토링, 제작 지원 및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신진 큐레이터들이 직접 예술 전시를 기획해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기술과 예술 결합한 특별한 브랜드 철학 전달”**

국내를 넘어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도 펼쳐 왔다.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이하 LACMA), 영국 테이트모던과 같은 글로벌 문화예술계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업 경영 전반에 문화 예술적 가치를 접목해 혁신적인 브랜드 철학을 전달해 왔다.

주목해볼만한 프로젝트들이 올해도 이어졌다. 8월엔 현대자동차 부품그룹사 현대트랜시스가 미국 뉴욕 기반 친환경 패션 브랜드 ‘제로+마리아 코르네호와 손잡고 자동차 폐소재를 업사이클링(up-cycling) 기증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킴)하는 협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협업은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와 패션의 이색 결합을 통해 업사이클링트렌드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현대트랜시스가 자동차 시트 연구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가죽을 제공했고, 의상 디자인을 제로+마리아 코르네호가 맡았으며, 협업 의상의 콘셉트는 ‘자연과의 조화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는 4개월간 제작한 의상을 2020 S/S 뉴욕패션위크(9월 6-11일) 첫 날인 9월 6일 뉴욕 맨해튼 ‘퍼블릭 키친’에서 ‘리스타일(Re:Style)’이라는 이름의 캡슐(소규모) 컬렉션을 통해 선보여 주목받기도 했다.

영국 테이트모던과는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폰즈 아메리카누스(Fons Americanus)’를 10월부터 선보이는 중이다. 전시는 2020년 4월 5일까지 열린다. 현대자동차와 테이트모던은 지난 2014년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11년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테이트모던의 대형 전시장 터바인 홀에서 혁신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인 ‘현대 커미션’을 매해 선보여 왔다.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2015), 필립 파레노(2016), 수퍼플렉스(2017), 타니아 브루게라(2018)에 이어 올해는 미국 출신의 예술가 카라 워커가 터바인 홀에서 다섯 번째 현대 커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테이트모던과 올해 1월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 설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문화 예술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술, 문화,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전 지구적 관점의 연구와 협업을 2024년까지 6년 동안 지원한다. 10월 테이트모던에서 개막한 ‘백남준:전은’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의 연구 결과가 포함되는 첫 번째 전시로, 2020년 2월 9일까지 열리며 백남준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11월 6일엔 2015년부터 장기 파트너십을 맺어온 LACMA와 중국 상하이 유즈 미술관(Yuz Museum Shanghai, 이하 유즈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파트너십 활동 확장 계획을 밝혔다. LACMA와 유즈 미술관 설립자 부디택이 지난해 발표한 공동 재단 설립을 기반으로 현대자동차와 추진하게 된 파트너십은, LACMA와 유즈 미술관이 공동 설립한 ‘유즈 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시·프



영국 테이트모던과는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폰스 아메리카누스(Fons Americanus)'를 10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전시 현장. 사진 = 현대 커미션: 카라 워커 © Ben Fisher Photography

로그램·컬렉션 관리 전반에 LACMA와 유즈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다. 현대자동차는 개막 전시를 비롯한 전시 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진행한다.

11월 7일엔 LACMA와 유즈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첫 전시 '인 프로덕션: 아트 앤 더 스튜디오 시스템(In Production: Art and the Studio System)'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시각 예술 또는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 현장이 지난 20년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보여주는 현대미술 전시로, LACMA 소장품 중 영화, 영상 분야와 연계된 24명의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개막 전시에

이어 2020년 3월 및 5월에 각각 현대자동차 후원 전시가 선보여질 예정이다. 이 외 현지 고객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측은 "현대모터스튜디오 베이징을 통해 이미 중국 내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는 현대자동차는, 향후 상하이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및 글로벌 고객과 소통하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유럽, 미주, 아시아에서 미술관 파트너십은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전달

하고자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이번 신규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상하이 문화예술계의 빠른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더 많은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예술 활동을 다루는 책도 2016년부터 이앤아트와 함께 발간해 왔다. 올해 8월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예술의 양상을 다루고 현대자동차의 예술후원 철학을 담은 단행본 '현대 모터 아트 Vol.4 아트+테크놀로지'를 발간했다. 이앤아트가 기획, 편집을 맡았다. '현대 모터 아트' 시리즈는 낱말이 변화하는 현대미술의 이슈를 담아 현대자동차가 발간하는 아트북이다. 그 호의 주제에 따라 그와 관련한 현대자동차의 문화예술 활동을 소개하고, 그 주제의 전문가들 원고와 인터뷰 등을 다룬다.

이 외에도 현대자동차는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 후원을 통해 테이트모던뿐 아니라 전 세계 협력 미술관 및 연구 기관에서 매년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동시대 미술 및 미술사 정립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며 중장기적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미국 뉴욕 소호 블러커 스트리트에 위치한 패션 디자이너 '마리아 코르넬'은 현대자동차 부품그룹사 현대트랜시스로부터 자동차 폐소재를 제공받아 이를 옷으로 재탄생시켰다. 사진 = 현대자동차